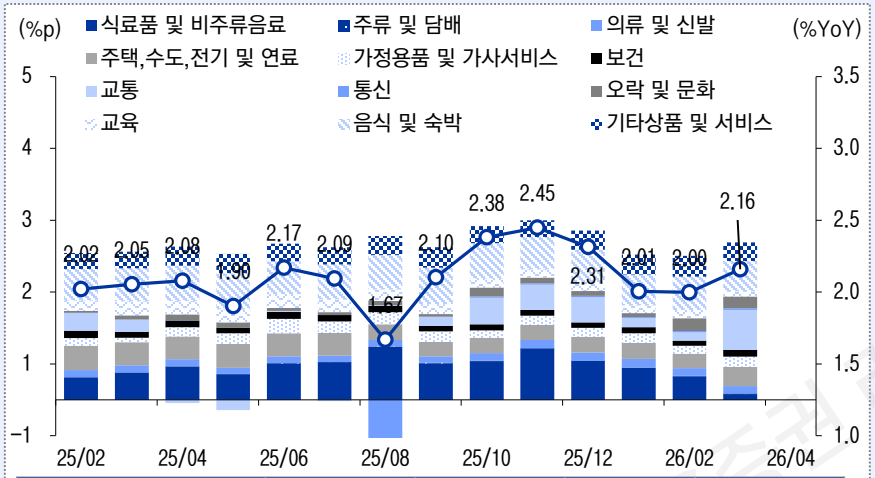
Today Chart Bond

2026. 4. 2

채권 우혜영
whydele@ls-sec.co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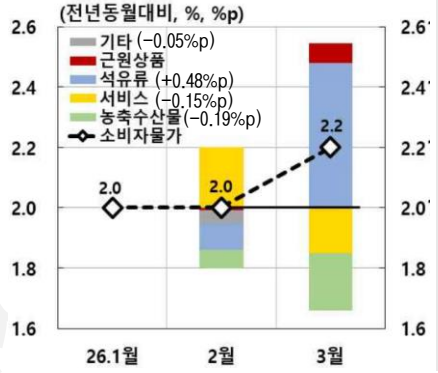
한국 2026년 3월 CPI: 중동발 리스크, 석유류 상승으로 반영 시작



항목	상승률(%MoM)	기여도(%p)	상승률(%YoY)	기여도(%p)
총지수	0.34%	+0.34%p	2.16%	2.16%p
식료품 및 비주류음료	-0.94%	-0.14%p	0.51%	+0.08%p
주류 및 담배	0.02%	+0.00%p	0.60%	+0.01%p
의류 및 신발	0.02%	+0.00%p	2.10%	+0.11%p
주택, 수도, 전기 및 연료	0.19%	+0.03%p	1.55%	+0.27%p
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	0.39%	+0.02%p	3.17%	+0.15%p
보건	0.39%	+0.03%p	1.31%	+0.11%p
교통	3.42%	+0.35%p	4.99%	+0.51%p
통신	0.19%	+0.01%p	0.61%	+0.03%p
오락 및 문화	-0.14%	-0.01%p	2.77%	+0.17%p
교육	0.50%	+0.04%p	1.07%	+0.08%p
음식 및 숙박	0.13%	+0.02%p	2.74%	+0.41%p
기타상품 및 서비스	-0.15%	-0.01%p	4.59%	+0.26%p

자료: CEIC, 한국은행, LS증권 리서치센터

물가 변동 요인



석유류(+0.48%p, 2월 -2.4%→3월 +9.9%)
: 중동 상황에 따른 국제 유가 및 원/달러 환율 상승 등으로 높아짐. 석유류 최고가격제 등 정부 물가안정대책이 오름폭 상당 부분 상쇄

농축수산물(-0.19%p, 1월 1.7%→2월 -0.6%)
: 정부의 주요 농산물 출하 확대 등으로 하락 전환
- 농산물: 1월 0.9%→2월 -1.4%→3월 -5.6%
- 수산물: 1월 5.9%→2월 4.4%→3월 4.4%

근원물가(-0.08%p, 1월 2.3%→ 2월 2.2%)
: 설 연휴 여행 수요로 일시 확대되었던 여행 관련 개인서비스가격 다시 낮아지면서 오름폭 축소
- 근원상품: 1월 1.5%→2월 1.5%→3월 1.8%
- 서비스: 1월 2.2%→2월 2.6%→3월 2.4%
(개인서비스: 1월 2.8%→2월 3.5%→3월 3.2%)

Key Point

●소비자물가는 헤드라인 2.16%(전월 2.00%),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2.30%(전월 2.46%),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2.19%(전월 2.30%)
- 2월 물가상황점검회의에서 언급된 것처럼 중동 상황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으로 석유류 가격이 큰 폭 상승했지만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,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에 크게 힘입어 전월대비 오름폭 소폭 확대되는데 그침

●한국은행 유상대 부총재보, 4월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의 큰 폭 상승에 의해 오름폭이 확대되겠지만 식료품 가격 안정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물가안정대책 등으로 비용측 물가상방압력 완화 예상

●4월은 국제항공료 위주의 서비스 가격, 수입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가능
- 다만 2월보다 낮은 근원상승률은 다행스러운 부분이고, 통상 3~5월의 채소류는 이상 기후 부재 시 가격 하락세 + 작년 3월 이후 상승한 가공식품 기저효과 반영 시기인만큼 물가 하방 요인도 혼재

Compliance Notice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(작성자: 우혜영).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_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_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
_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_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

LS증권